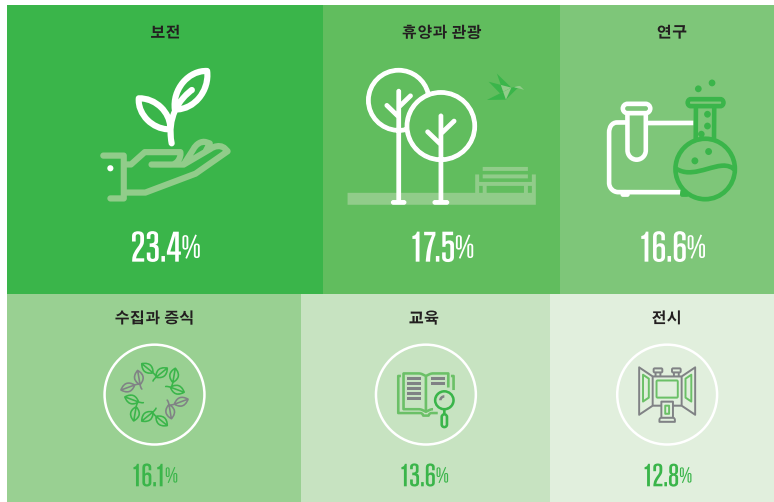


국민들이 생각하는 식물원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사립식물원이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여 향후 정책·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2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845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Q 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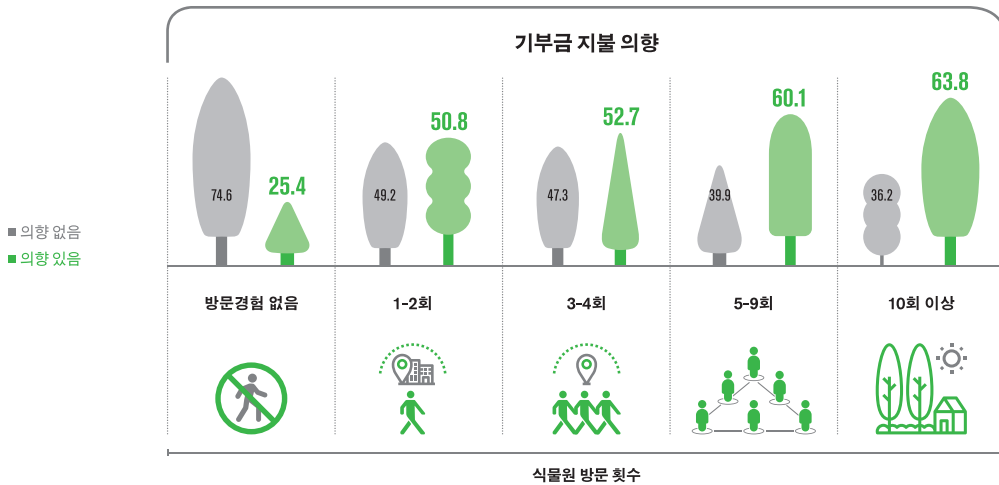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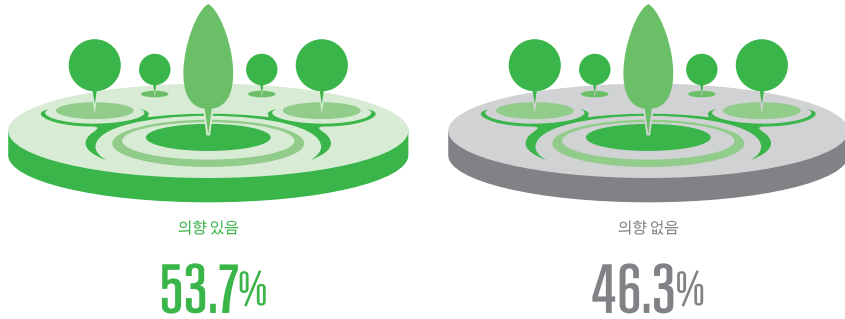


A 다양한 식물종과 자연 토양의 보전, 도시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는 자연 속에서의 휴양·관광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

계층화분석(AHP)을 통해 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국민들은 식물원의 보전(23.4%)과 휴양·관광(17.5%) 기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식물원을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연·생태적 여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에서는 식물원의 공익적 기능을 여섯 가지(수집과 증식, 보전, 연구, 전시, 교육, 휴양과 관광)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조사

❶ 우리 지역의 식물원 보전을 위해 기부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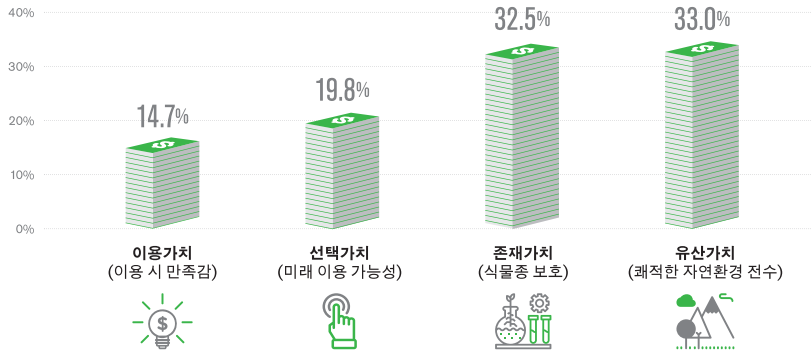


❷ 지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소 높고, 식물원을 방문한 횟수가 많을수록 식물원 보전을 위한 기부금 지불의사가 높음

지역 사회에 있는 식물원의 보전을 위해 기부금을 지불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의향 있다' (53.7%)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응답 비율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식물원 방문 횟수는 기부금 지불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방문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74.6%는 지불 의사가 없는 반면, 10회 이상 방문한 응답자의 63.8%는 기부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식물원 경험 수준이 장소 애착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Q 기부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이유는?

기부금 지불 의향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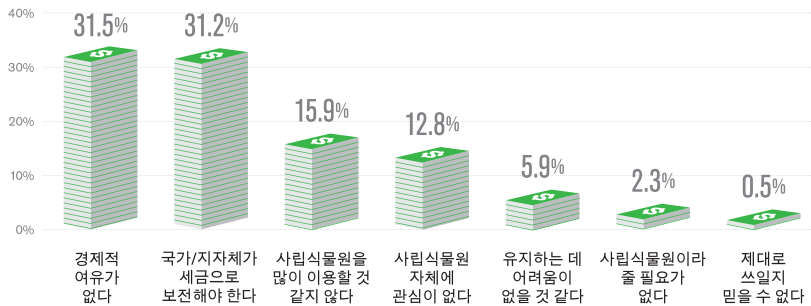


A 식물이 가지는 '유산가치'와 '존재가치' 때문

식물원 보전을 위해 기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AHP)한 결과, 식물원의 미래 세대의 이용을 위한 '유산가치(33.0%)'와 식물원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존재가치(32.5%)'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직접 식물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적 만족감보다는 식물원의 공익적 기능과 그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Q 기부금을 지불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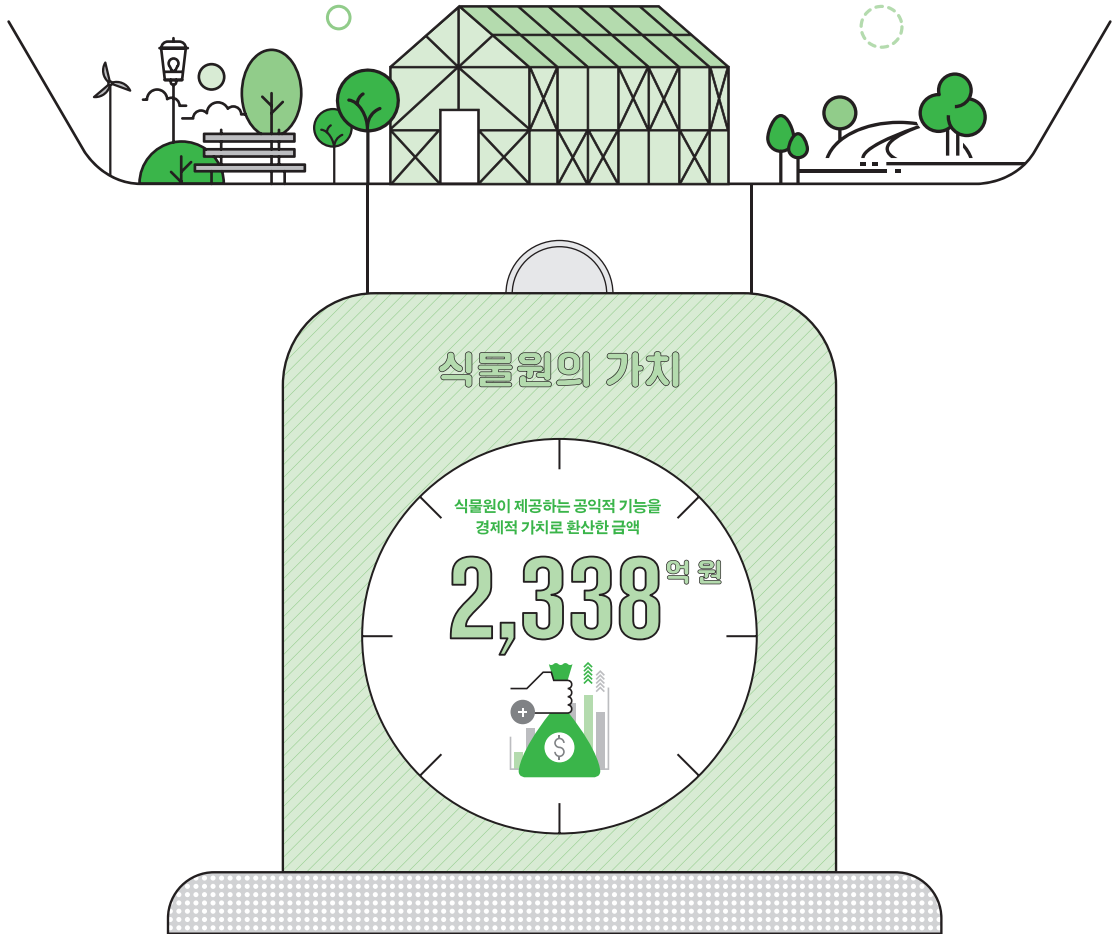
기부금 지불 비의향자 대상



A 개인이 아닌 정부에서 식물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

식물원의 보전을 위해 기부금을 지불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우선 경제적 여유가 없고 (31.5%), 두 번째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31.2%)이라고 꼽았다. 식물원을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가꾸어가는 지역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이 기부금 지불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Q 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A 우리나라 식물원은 연간 약 2,338억 원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공

식물원의 보전을 위한 기부금 지불의사액(WTP)을 조사한 결과 6만 원(37%)과 10만 원(35%)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식물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인구집단이 있음을 방증한다. 전국 식물원의 보전을 위한 가구당 기부금 지불의사액은 1만 2234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물원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약 2,338억 원으로 도출되었다.